

## 기독교 청년들의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초록  
(충현복지관 사회복지사),  
백은령  
(충신대 교수)

### 요약

본 연구는 대상자인 기독교 청년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학생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의 지표인 자아존중감과 고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직장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 지표 중 대인불안을 제외하고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직장인의 개별성-관계성은 사회적 적응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취업준비생인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사회적 적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부르셨는 지 자신을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명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깊은 나눔을 하고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응에 용이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기독교 청년, 개별성-관계성, 심리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적응

### I.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017년 5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20~29살) 실업률은 11.3%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업률(10.9%)에 견줘 0.4%p 올랐다(한겨레, 2017). 연령대별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4월 기준 최고치이다. 지난해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율이 고르게 올랐지만 20대는 57.8%로 한해 전보다 0.2%p 하락했다. 이러한 청년 취업난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결혼 역시 저조하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1974년 이후 42년 만에 역대최저이다. 통계청이 3월 22일 발표한 '2016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81,600건으로 2015년보다 7.0%(21,200건) 감소했다(연합뉴스, 2016).

현재의 20대는 과거 성인들의 과업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성인기를 모색하고 있다(Arnett, 2000).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과거의 20대가 살던 사회의 모습이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성인기 과업을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즉, 많은 20대 청년들은 대학진학과 취업을 두고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졸업할 때 유예하여 취업에 도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때 취업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Arnett의 이론과 비교하여 한국 사회의 20대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을 살펴본 김은정(2014)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20대들은 자아정체성을 탐구하며 심리

\* 제1저자,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대학원 졸업자

\*\* 교신저자,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적·정서적·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하여 좌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며 원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경제적 미분리로 인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통제할 수 없으며 원가족의 미분리를 통해 성인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독교인 대학생은 종교가 기독교인 대학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되심을 확신하여 영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즉,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한 청년을 뜻한다(서은숙, 2016). 또, 황인숙(2014)는 기독교인인 청년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겪으며 심리치유를 경험하고 전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시기라고 정의하였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지만 기독교인이라는 특성으로 대학진학, 취업, 결혼 등의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있어 일반 대학생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20대 기독교 청년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그들의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서 가치관의 변화, 대인간의 갈등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정립해나간다(장익, 2005). 이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인해 교회 밖의 사회문화 속에서, 또 사회로 나와 마주하는 대인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당면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 청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인 스스로나 사회 속에서나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은 그들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창 39:20; 단 6:10).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이기신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마28:20).

이에 기독교 청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개별성-관계성과 연결 지을 수 있다. 개별성-관계성은 인간발달과정 중 대상관계이론의 ‘분리-개별화’과정과 연관되어서 설명되곤 한다. 어머니와의 분리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대상(어머니)를 구별이 가능해지고, 분리된 자신이 누구인지 정립하게 되는 개별화과정은 타인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는 대상항상성을 통해 완성되어진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서 타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발달과정적인 특성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적용된다. 청년들이 청소년으로서 보호를 받다가 세상으로 첫 발을 떼는 상황은 대상항상성을 깨닫는 과정과 비슷하다. 낯선 환경으로 새 출발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분리를 통해 자신을 알게 된 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기반으로 기독교 청년들 개개인과 청년들 인간관계특성을 개별성-관계성, 그리고 개인 내적인 적응을 심리적 적응, 개인 외적인 적응을 사회적 적응으로 대응하였다. 즉, 이러한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 기독교 청년들이 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이라는 직업적 특성에 따라 이들의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적응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청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II. 문헌 고찰

### 1. 개별성-관계성

인간은 개별적 자아를 가진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존재이며, 인간관계는 이러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다. 인간관계의 주체인 나와 너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대인감정 및 대인행동, 귀인 등의 개념이 있다.

그 중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개인이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신체와 행동 그리고 능력 등에 관하여 가지

고 있는 가치에 대한 태도, 신념, 견해를 말하며 상황에 대한 자기지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경험의 총체이다(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교육학용어 사전에서 자아개념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 즉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또한 개인이 사회적 세계(social world)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절차 또는 지식 습득 방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Woike, 1994; 송경재, 2005).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획득했다는 것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잘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율성, 독립성과 성취동기 및 자기정체감을 잘 발달시켰다는 것과 동일하다. 즉, 자아개념은 개인 자기 자신의 신체나 정서, 인지, 심리 더 나아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자기 자신의 총평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적인 자신의 의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피드백이자 인간의 기본욕구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자아개념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개념은 자신에 대한 개념이라고 간단히 정의했을 때 관계변인은 자기와 타인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관계변인이란 자기개념(자기변인)과 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내적 성향 이라기보다 자기와 타인이 공존하는 대인관계 맥락에서 그 특성이 잘 발휘되는 변인으로서 자기와 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며 매개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계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특성들은 관계 속에서 본래의 특성이 더 발휘되는 특성들이다.

이러한 자기 개념이나 관계변인 모두 개인이 속해있는 해당 문화권에 따라 지향점이나 양상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기개념 즉, 자기와 관련된 신념과 지식들의 표상체계로서 자기와 세상을 지각하는 참조체계로 개인의 특성 중 대인관계 맥락에 따라 개별성(individuality)과 관계성(relatedness)을 주목하고자 한다(조운경, 2003).

개별성은 사회적 환경 자극들의 특징들 중 독립적이고 차별적인 지각을 포괄한다. 흔히 분리(separation), 개별화(individuation), 주도성(agency), 개성(uniqueness), 차별화(differentiation), 독특성(distinctiveness) 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며,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자신을 자율적이거나 독립적인 사람으로 지각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별개의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자기 주장성, 성취 지향성, 자율, 독립 등과 함께 사용되며 결국 자기 지향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개별성에 해당되는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강한 자의식과 자기와 타인이 별개의 존재라는 인식이 전제된다(김동직, 1999).

관계성은 그에 반해 연대성을 지향한다. 즉, 인간의 관계적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을 지향한다. 여러 사회적 자극들 간의 관계와 유사성을 연관 지어 이해하여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자극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통합하기 위해 관계성을 사용한다. 관계성으로 분류되는 개념들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특성들로는 우호성(agreeableness), 친화성(affiliation), 집단성(collectiveness), 연대성(communion), 소속감(belongingness), 연결성(connectedness) 등의 용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사용되었다. 타인과의 연결, 대인 민감성, 친밀 및 친화성, 정서적 표현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의 공통점은 타인 지향성이라 할 수 있다.

개별성과 관계성은 단순히 자기개념이나 관계변인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개별성과 관계성은 관계에서의 만족이나 불만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변인으로 보인다(김동직·한성열, 1998).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으로 대변될 수 있는 개별성(individuality)과 관계성(relatedness)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 근본적이며 공통적인 특성으로서 상호작용하는 면이 있으며, 양자 중 어느 하나만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은 끊임없는 변증법적 발달을 해 나간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Dolinger, Preston, O'Brien & Dilalla, 1996; Guisinger & Blatt, 1994; 김동직, 1999). 즉, 개별성과 관계성은 상반된 개념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발달 과정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심리적 발달을 상호 보완적으로 촉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관계성이 잘 발달된 사람보다 개별성, 관계성 양쪽을 모두 조화롭게 발달시킨 사람이 더 유리하다. 즉,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상황에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어느 쪽으로든 그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특성을 조화롭게 발달시킨 사람이 더 대인관계를 만족스럽

게 영위할 수 있다. 또, 본질적으로 어느 한 쪽이 높고 낮음이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개인이 속한 환경이 요구하는 데로, 적응에 용이한 데로 특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나 꿈을 추구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 모두 중요하다. 언제나 추구하는 목표를 쟁취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 지나친 목표 추구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때에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와 격려를 끌어낼 수 있는 관계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모두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별성과 관계성 모두 필요하다.

그 외에 기존 개별성-관계성이 활용된 연구는 보통 대학생을 대상으로 41%(총 27개 연구 중 11개 해당)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적응 등 개인의 실질적인 삶의 방면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개별성-관계성은 어떤 삶의 양상을 드러내게 된 원인으로 참조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즉, 개별성-관계성이란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분리시키거나 연결해서 생각하는 인식적 특성으로 자아개념이자 관계변인이며, 관계에서의 만족이나 불만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변인이며 삶의 다양한 부분을 뒷받침하며 신념, 판단, 선택들에 영향을 미친다.

## 2. 심리/사회적 적응

‘적응’에 대하여 Lazarus(1976; Moorehouse, 1991; 송경재, 2007, 재인용)은 1차적 적응은 환경에 순응하는 것, 2차적 적응은 개인과 환경이 상호적으로 반응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은·정옥분(1998)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생체의 욕구에 대한 순응이자 살아남는 것이며, 심리학적 측면으로는 개체의 욕구 해소 과정이자 욕구 만족을 위해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적응을 외적 적응, 내적 적응으로 나누었다. 외적 적응은 개인이 환경의 규범에 근거를 두고 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내적 적응은 개인의 주관적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 기준이나 요구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수용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즉, 각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사회 환경이나 개인의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도 잘 응대할 상태를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자신과 사회환경과의 조화를 잘 유지하여 자신의 욕구나 주변의 요구의 상호작용에도 적합하게 피드백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적응에 대한 개념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되며, 개개인이 개개인으로서, 또 환경 속의 개개인으로서 적합하게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적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심리적 적응

적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맞추어 나가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개념상으로 자명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적응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다른 용어들과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 연구자들조차 개념적 정의와 측정 방식에 대한 합의를 쉽게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Compton, Smith, Cornish & Qualls, 1996; 장훈, 2001, 재인용).

심리적 적응은 건강과 객관적, 주관적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 및 적응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디스트레스,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심리적 적응은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옥선화, 1989).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심리적 적응이란 개인의 삶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서 개개인이 환경 속에서 개인 내적으로 내린 자기 삶에 대한 개인적 총평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동직(1999)의 연구와 정은이(2002)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의 지표로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 대인불안을 채택하였다.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은 긍정적 지표, 고독감과 대인불안은 부정적 지표로 사용되었다.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에 대한 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Rosenberg, 1965). 즉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개인적 신념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개념, 자기수용, 자기 확신, 자기강화, 자아상, 자기지각 등으로 정의되고 좁은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정의된다. 자기개념은 기술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부정적 감정이 포함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하며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개념을 평가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Mussen et al., 1984; 이시은, 2010, 재인용).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개념으로서 심리적 적응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은의-노안영(2007)의 연구에서 기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은 행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시은(2010)의 연구에서도 개별성과 관계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기초로 한 성인애착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생활만족감

생활만족감(Life Satisfaction)은 삶의 질이나 안녕감, 행복, 만족 등과 같은 여러 개념으로 정의되며, 현실을 인지하고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해 자신의 삶의 질을 주관적 차원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유정희, 2015). 이러한 생활만족감은 경제력이나 물리적 편안함,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한다(김동직, 1999).

#### (3) 고독감

‘고독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을 뜻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재를 말한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교환이나 피드백이 없는 객관적 상태를 지칭하는데, 대부분 고독은 물리적 고립상태를 동반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주변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없이 홀로 존재하는 상태라면 고독에 포함된다. 사회적 관계의 부재 상태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사회적 부적응의 징후로 여겨지기도 한다(Larson & Csikszentmihaly, 1978; 임아영, 2010, 재인용).

#### (4) 대인불안

대인불안은 의미상으로 사회적 공포증(socialphobia), 사회적 불안(socialanxiety), 대인공포, 수줍음(shyness) 등의 용어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66년 Mark와 Gelder가 처음으로 대인공포증 혹은 대인불안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1980년 DSM-III에서 공식 진단명으로 채택되어 사용된다. DSM-IV에서는 대인불안이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 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또는 수행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가지면서 자신이 과연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의심할 때 대인불안을 경험한다(이재원, 2006).

#### 2) 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응에 비해 사회적 적응은 보다 사회와 더 깊은 관계성을 갖는다. 사회적 적응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화 욕구를 반영하며 사회규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활동의 회복과 활성화를 뜻한다.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며

사회와 떠나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즉, 인간은 시시각각 바뀌는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적응이란 넓은 의미로 개인과 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적응을 잘한다는 의미는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나아가 그러한 자신의 수행에 만족감을 얻을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자기통제와 자발성, 순응과 비순응 간의 균형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며, 자기의 감정을 억제만 하지 않고 해방시킬 줄도 알며, 충동적인 행동이 비생산적이고 해로울 때는 그 충동을 억제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또한 생활 적응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요구, 능력, 생활 장면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면적 욕구와 적절히 조화가 되는 사회적 역할을 선택하며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불안 없이 갈등과 위협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처리하며, 맡은 일을 끈기 있게 완수할 수 있다(정문희, 1995; 박세언, 2012, 재인용). 이와 같은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사회적 적응이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역할 수행정도이자, 개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환경 속에서 해내는 역할 수행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3. 개별성-관계성과 적응 간의 관계

#### 1)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

개별성-관계성이라고 하는 자기개념이자 관계변인은 집단주의적, 개인주의적 경향성과 관련하여 심리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을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김동직(1999)은 한국과 독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성과 관계성을 조사했는데, 양측 대학생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모두 높은 경우 심리적 적응을 잘했으나 두 특성이 모두 낮은 경우는 심리적 적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또한 개별성은 높지만 관계성은 낮은 집단과 반대로 개별성은 낮지만 관계성은 높은 집단은 고독감을 제외한 모든 심리적 적응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김동직(1999)은 개별성-관계성이 모두 높은 발달 수준이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채정만이중한(2004)은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개별성-관계성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는 관계성을 높이는 것이 적응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남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고관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식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별성은 타인을 신뢰하는데 더 관계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남한에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는 존재 즉, 애인같이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관계성보다는 개별성 즉, 자신에 대해 독립적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정은이(2002)는 개별성 - 관계성의 발달정도가 일상적 창의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일상적 창의성과 심리적 적응 척도들과의 상관에서는 자아존중감 척도와 0.37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대인불안과는 -0.3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생활 만족감과는 0.2의 정적 상관, 고독감과는 -0.19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심리적 적응 척도의 긍정적 지표들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부정적 지표들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일상적 창의성이 심리적 적응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특히, 일상적 창의성 하위요인 중 이타적 자아확신과 관계적 개방성 요인의 설명력이 28%, 1%로 자아존중감을 의미 있게 설명해주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위와 같은 연구를 볼 때, 개별성-관계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에 유리하며 개별성-관계성 모두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나 대인관계적인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성-관계성이 자기개념이자 관계변인이기 때문에 심리적 적응이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인 것을 생각해보는 때에도 자기개념이자 관계변인이 개별성-관계성이 잘 발달할수록 심리적 적응 역시 개인적인 삶의 양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또, 기존 연구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개별성-관계성이 잘 발달되어야 개인의 삶에서 마주치는 개인적이고 대인관계적인 일들을 잘 대처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2) 개별성-관계성과 사회적 적응

전통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암묵적으로 개별성을 성숙의 지표로 간주해왔다. 개별성은 독립과 자율 및 개성을 추구하며, 자기주장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하며,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을 볼 때, '개인을 중시하는 서구문화적 토양에서 비롯된 것이다(Berschied, 1994). 즉, 개별성이 높은 사람은 서구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임을 알 수 있다.

송경재(2005)는 개별성-관계성과 군생활적응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의 연구 결과, 개별성 성향은 군 생활 적응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성 성향은 군 생활 적응 간에 정적 상관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44, p<.001$ ). 군대라는 특성 상 집단의 결속력과 관계성을 지향하고 맥락에 순응적인 관계적 경향성은 군 생활 적응과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개별성, 관계성이 모두 높은 집단의 경우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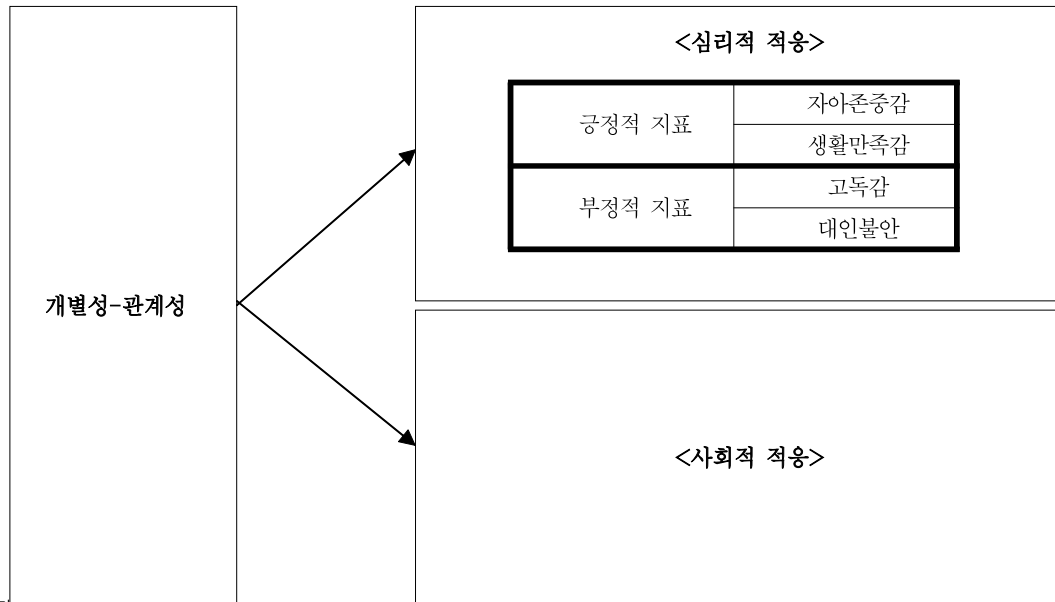
정은이(2002)의 연구에서는 일상적 창의성 총점과 개별성과는 .43, 관계성과는 .55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 개별성, 관계성도 높음을 나타내주었다. 즉, 창의적 사람들의 독립적, 혁신적이며 자기 주장적인 특성 즉 개별적인 성향과 협동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외향적인 특성 즉, 관계적인 성향이 독립적으로 한 개인내에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며,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높게 가지고 있었다. 일상적 창의성이 조화로운 대인관계 속에서 독창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 신뢰, 확신, 개방적인 특성과 이타적이며 관계 지향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개성과 집단과의 조화 모두 요구되는 한국 사회에서 보다 적응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기연(2003)의 연구에서 관계성이 발달한 개인이 개별성이 발달한 사람에 비해 자기위로 능력이 더 높고 관계성과 자기위로 능력 사이에서 사적 자의식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별성-관계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적응에 용이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사회적 적응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화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규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 윤리적 가치 등을 의미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개별성-관계성이 높은 경우 개인 각각이 속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그 속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청년의 대인관계변인이자 자기개념인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기독교청년들이 본인의 삶을 보다 잘 영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혼 20대(20~29세; 1989~1998년생) 기독교청년들로 총 162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임의추출 방식으로 직업군 - 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 - 으로 구분하여 조사원들을 통해 조사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개별성-관계성 척도, 심리적 적응척도의 긍정적 지표로 자이존중감 척도, 생활만족도 척도, 부정적 지표로 고독감 척도, 대인불안척도를 채택하였고, 사회적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 1) 독립변인: 개별성-관계성

본 연구에 사용된 개별성-관계성 척도는 김동작한성열(1999)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것이다. 개별성과 관계성 모두 각각 15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대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별성'의 하위 요인으로 자기주장성, 독립성, 자율성을, 관계성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친밀성, 친화성, 공감성을 보고하고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개별성 척도 Cronbach's  $\alpha = .78$ , 관계성 척도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7$ 로 나왔다.



## 2) 종속변인: 심리적 적응, 사회적 적응

### (1) 심리적 적응

본 연구에서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김동직(1999), 정은이(2002)의 연구에서 심리적 적응을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지표로 자기 존중감과 생활 만족감 척도를, 부정적 지표로는 고독감과 대인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9)가 제작한 자아존중감(self-esteem)척도로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나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져왔다. 2주에 걸친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85, .88의 신뢰도와 상관을 보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문항 5개와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2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1로 나왔다.

생활 만족감은 Diener, Emons, Larsen & Griffin(1985)이 개발한 5문항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5로 나왔다.

고독감은 Russell(1996)이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Version 3)'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개인의 대인관계의 타당성을 측정하는데 관련있으며, 건강과 웰빙, 고독감 사이의 상관에 의해 보고되었다. 김옥수(1997)는 요인분석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일 타인의 부족과 소외감을 의미하는 "친밀감 타인부족", 이와 관련된 사회망의 부족에서 비롯된 "사회적 타인부족" 및 "소속감 부족"의 3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고독감을 표현하는 11개의 부정적 문항과 9개의 긍정적 문항으로 4점 척도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7로 나왔다.

대인불안은 Leary(1983)의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대인 불안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주관적인 불안으로 나타내는 말을 잘 안하려고 하거나, 주저하고, 어색해하며, 회피적인 행동들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행동을 대답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Leary(1983)의 대인관계 불안 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IAS)를 김남재(1995)가 번안한 한국판 IAS를 사용하였다. 15문항 중 4문항(3,6,10,15문항)은 역채점 하도록 되어있으며 5점 척도이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78이었다.

### (2) 사회적 적응

본 연구를 위한 '사회적 적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곽호근(2007)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문항은 인간의 경우, 사회생활 영역에 있어 단지 자연환경 적응 뿐 아니라, 집단이나 사회, 시스템, 인간관계 등의 사회적인 환경, 더 나아가 그 산물로서의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연구 한 바 있는 전미향(1997)의 총 47개 문항 중 연구 특성에 수정·보완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한 척도이다. 이 척도에 응답한 점수에 대해 높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응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총 4개의 하위척도로 구분되는데 '적응성(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충동성(얼마나 자제하는가)', '책임성(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 '대인관계(사교, 협동, 친절, 활동성 등)' 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응력의 측정을 위한 원척도인 곽호근(2007)의 사회적응력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로 매우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Cronbach's  $\alpha$  = .679로 나왔다. 이는 집단간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 IV. 연구결과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기술분석

1)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에 따른 기술분석

연구대상자로 표집된 기독교 20대 청년들의 개인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최종학력, 직업, 종교, 월소득, 거주지, 주관적 계층의식을 포함시켰다. 청년들의 개인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았다.

개인특성에 있어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45명(27.6%), 여자가 118명(72.4%)으로 나타났다. 평균나이는 24.3세였고, 학력은 고졸 47명(29.0%), 전문대졸 13명(8.0%), 대졸 86명(53.1%), 대학원 졸업 13명(8.0%)이었다. 직업군은 학생 51명(31.5%), 직장인 69명(42.6%), 취업준비생 38명(23.5%)로 직장인, 학생, 취업준비생 순으로 많았다. 학생의 경우 인문사회 31명(19.1%), 사범계열 4명(2.5%), 이공학계열 9명(5.6%), 예체능계열 6명(3.7%)였다. 직장인의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아르바이트)는 4명(2.5%), 비정규직 30명(18.5%), 정규직 35명(21.6%)이었다. 취업준비생들의 경우 평균 12.9개월 동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0~350만원까지의 범주가 구성되었으나 평균 106.9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02명(63%),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57명(35.2%)였다. 주관적인 계층의식을 조사했을 때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총 4명(2.5%)였고,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총 104명(64.2%),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51명(31.5%)이었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빈도분석 결과

특성	세부특성	빈도(%)	특성	세부특성	빈도(%)
학력	고졸	47(29)	성별	남	45(27.6)
	전문대졸	13(8)		여	118(72.4)
	대학 졸	86(53.1)	거주지역	서울	102(63)
	대학원졸	13(8)		경기	57(35.2)
직업	학생	51(31.5)	주관적 계층인식	상위층	4(2.5)
	직장인	69(42.6)		중위층	104(64.2)
	취업준비생	38(23.5)		하위층	51(31.5)

<표 8>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기술분석 결과

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나이	24.3	2.871	20	29
소득	106.9	103.822	0	350

2) 주요 변수들의 응답결과 및 비교

(1) 주요 변수들의 응답결과

청년들의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 대인불안), 사회적 적응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M, 표준편차SD를 정리하여 표<IV-2>에 제시하였다. 개별성-관계성의 평균은 3.21, 심리적 적응(긍정 지표)의 평균은 3.09, (부정지표)의 평균은 2.54이었다. 사회적 적응은 3.44의 평균값을 갖는다.

<표 9>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기술 분석

척도	하위영역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별성-관계성	3.25	0.32	2.43	4.13	
심리적 적응	긍정적 지표	자아존중감	2.57	0.22	2.00	3.30
		생활만족감	3.10	0.71	1.40	5.00
	부정적 지표	전체	2.83	0.36	2.00	3.80
		고독감	2.36	0.21	1.90	2.85
	부정적 지표	대인불안	3.05	0.37	2.07	3.80
		전체	2.71	0.23	2.22	3.23
	사회적 적응	3.27	0.36	2.30	4.85	

2. 조사대상자의 직업구분에 따라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 대인불안), 사회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사후검정방법으로는 Scheffe를 사용했다.

직업별로 평균차이를 비교하자면, 심리적 적응의 긍정 지표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부정 지표의 고독감, 심리적 적응의 긍정지표 전체, 부정지표 전체가 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Scheffe의 사후검정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직장인과 취업준비생의 차이는 .22( $p < .05$ )로 직장인은 취업준비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생활만족감에 있어서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차이는 .50\*( $p < .05$ ). 직장인과 취업준비생의 차이는 .55\*( $p < .05$ )로 학생과 직장인은 취업준비생보다 생활만족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않았지만 직장인은 학생보다 생활만족감이 높았다.(.055,  $p = .91$ ). 즉, 취업준비생<학생<직장인의 모양을 볼 수 있다. 또, 심리적 적응의 긍정 지표에 있어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차이는 .29\*( $p < .05$ ), 직장인과 취업준비생의 차이는 .38\*( $p < .05$ )로 학생과 직장인은 취업준비생보다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지표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직장인은 학생보다 심리적 적응의 긍정지표가 높았다(.09,  $p = .59$ ). 즉, 이 역시 취업준비생<학생<직장인의 모양을 볼 수 있다.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지표인 고독감에 있어서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는 .21\*( $p < .05$ )로 학생은 직장인보다 더 고독했다.

1) 학생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 $R^2 = .160$ )은 16.0%로 나타났으며 F값은 3.385( $p < .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학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 $\beta = .306$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통제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없다.

<표 21> 학생의 경우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_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개별성-관계성	0.306	0.100	0.398	3.055**	
(통제변수)	성별	0.109	0.070	0.211	1.552
	나이	-0.008	0.014	-0.090	-0.607

수입	0.001	0.001	0.247	1.671
R <sup>2</sup> (adj. R <sup>2</sup> )=.227(.160), F=3.385*				

\* p<.05, \*\* p<.01, \*\*\* p<.001

학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적 적응(생활만족감)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R<sup>2</sup>=.051)은 5.1%로 나타났으며 F값은 1.668(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학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생활만족감)에 정적인 영향( $\beta$ =.260)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수입( $\beta$ =.004)이 통제 변수로 사용되었다.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개별성-관계성	0.260	0.270	0.134	0.965	
(통제변수)	성별	0.124	0.189	0.095	0.656
	나이	-0.032	0.037	-0.136	-0.864
	수입	0.004	0.002	0.383	2.444
R <sup>2</sup> (adj. R <sup>2</sup> )=.127(.051), F=1.668					

\* p<.05, \*\* p<.01, \*\*\* p<.001

학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적 적응(고독감)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R<sup>2</sup>=.189)은 18.9%로 나타났으며 F값은 3.910(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학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고독감)에 정적인 영향( $\beta$ =.313)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사용된 통제변수는 없다.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개별성-관계성	0.313	0.085	0.474	3.698**	
(통제변수)	성별	0.009	0.059	0.020	0.153
	나이	-0.015	0.012	-0.194	-1.336
	수입	0.001	0.001	0.221	1.524
R <sup>2</sup> (adj. R <sup>2</sup> )=.254(.189), F=3.910**					

\* p<.05, \*\* p<.01, \*\*\* p<.001

학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적 적응(대인불안)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R<sup>2</sup>=.048)은 4.8%로 나타났으며 F값은 0.580(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학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대인불안)에 정적인 영향( $\beta$ =.148)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사용된 통제변수는 없다.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t	
개별성-관계성	0.148	0.166	0.129	0.894	
(통제변수)	성별	0.016	0.116	0.021	0.139
	나이	-0.027	0.023	-0.199	-1.209
	수입	0.001	0.001	0.074	0.451
R <sup>2</sup> (adj. R <sup>2</sup> )=.048(-.035), F=0.580					

\* p<.05, \*\* p<.01, \*\*\* p<.001

학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사회적 적응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R<sup>2</sup>=.093)은 9.3%로 나타났으며 F값은 2.283(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학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사회적 적응에 정적인 영향(β=.403)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사용된 통제변수는 없다.)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개별성-관계성	0.403	0.141	0.388	2.866**	
(통제변수)	성별	-0.020	0.098	-0.028	-0.200
	나이	-0.019	0.019	-0.151	-0.980
	수입	0.001	0.001	0.163	1.065
R <sup>2</sup> (adj. R <sup>2</sup> )=.166(.093), F=2.283					

\* p<.05, \*\* p<.01, \*\*\* p<.001

## 2) 직장인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R<sup>2</sup>=.094)은 9.4%로 나타났으며 F값은 2.661(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직장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β=.214)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통제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없다.

<표 21> 학생의 경우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_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개별성-관계성	0.214	0.090	0.296	2.379*	
(통제변수)	성별	-0.081	0.069	-0.142	-1.177
	나이	-0.009	0.013	-0.090	-0.700
	수입	-0.001	0.000	-0.210	-1.645
R <sup>2</sup> (adj. R <sup>2</sup> )=.227(.160), F=3.385*					

\* p<.05, \*\* p<.01, \*\*\* p<.001

직장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적 적응(생활만족감)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R<sup>2</sup>=.166)은 16.6%로 나타났으며 F값은 4.181(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직장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생활만족감)에 정적인 영향(β=.601)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수입(β=.010)이 통제 변수로 사용되었다.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개별성-관계성	0.601	0.265	0.271	2.266*	
(통제변수)	성별	0.182	0.202	0.104	0.901
	나이	0.024	0.039	0.078	0.633
	수입	0.003	0.001	0.327	2.675**
R <sup>2</sup> (adj. R <sup>2</sup> )=.218(.166), F=4.181**					

\* p<.05, \*\* p<.01, \*\*\* p<.001

직장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적 적응(고독감)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R<sup>2</sup>=.220)은 22.0%로 나타났으며 F값은 5.526(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직장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고독감)에 정적인 영향(β=.226)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나이(β=.028)이 통제 변수로 사용되었다.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개별성-관계성	0.226	0.081	0.323	2.801**	
(통제변수)	성별	0.075	0.062	0.136	1.213
	나이	-0.028	0.012	-0.283	-2.380*
	수입	0.001	0.000	0.192	1.626
R <sup>2</sup> (adj. R <sup>2</sup> )=.269(.220), F=5.526***					

\* p<.05, \*\* p<.01, \*\*\* p<.001

직장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적 적응(대인불안)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R<sup>2</sup>=.012)은 1.2%로 나타났으며 F값은 1.196(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직장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대인불안)에 부적인 영향(β=-.034)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사용된 통제변수는 없다.)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개별성-관계성	-0.034	0.159	-0.028	-0.214	
(통제변수)	성별	-0.024	0.125	-0.024	-0.192
	나이	-0.025	0.023	-0.143	-1.059
	수입	-0.001	0.001	-0.198	-1.479
R <sup>2</sup> (adj. R <sup>2</sup> )=.075(.012), F=1.196					

\* p<.05, \*\* p<.01, \*\*\* p<.001

직장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사회적 적응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R<sup>2</sup>=.314)은 31.4%로 나타났으며 F값은 8.337(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직장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사회적 적응에 정적인 영향(β=.539)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수입(β=.002)이 통제 변수로 사용되었다.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개별성-관계성	0.539	0.129	0.454	4.191***	
(통제변수)	성별	0.138	0.098	0.147	1.405
	나이	0.022	0.019	0.132	1.186
	수입	0.002	0.001	0.296	2.674**
R <sup>2</sup> (adj. R <sup>2</sup> )=.357(.314), F=8.337***					

\* p<.05, \*\* p<.01, \*\*\* p<.001

### 3) 취업준비생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취업준비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R<sup>2</sup>=.076)은 7.6%로 나타났으며 F값은 1.756(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 $\beta=.306$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통제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없다.

<표 21> 학생의 경우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_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		계수a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개별성-관계성		0.072	0.085	0.133	0.839
(통제변수)	성별	0.105	0.061	0.282	1.731
	나이	0.016	0.015	0.177	1.078
	수입	0.001	0.001	0.257	1.609
$R^2(\text{adj. } R^2)=.175(.076), F=1.756$					
* p<.05, ** p<.01, *** p<.001					

취업준비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적 적응(생활만족감)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 $R^2=-.092$ )은 -9.2%로 나타났으며 F값은 0.219( $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생활만족감)에 정적인 영향( $\beta=.185$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사용된 통제변수가 없다.

모형		계수a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개별성-관계성		0.260	0.270	0.134	0.965
(통제변수)	성별	0.124	0.189	0.095	0.656
	나이	-0.032	0.037	-0.136	-0.864
	수입	0.004	0.002	0.383	2.444
$R^2(\text{adj. } R^2)=.127(.051), F=1.668$					
* p<.05, ** p<.01, *** p<.001					

취업준비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적 적응(고독감)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 $R^2=-.050$ )은 -5.0%로 나타났으며 F값은 0.556( $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고독감)에 정적인 영향( $\beta=.078$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사용된 통제변수는 없다.)

모형		계수a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개별성-관계성		0.078	0.083	0.159	0.941
(통제변수)	성별	-0.022	0.059	-0.064	-0.369
	나이	-0.006	0.014	-0.080	-0.454
	수입	0.001	0.001	0.178	1.043
$R^2(\text{adj. } R^2)=.063(-.050), F=0.556$					
* p<.05, ** p<.01, *** p<.001					

취업준비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심리적 적응(대인불안)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 $R^2=.061$ )은 6.1%로 나타났으며 F값은 1.597( $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적 적응(대인불안)에 부적인 영향( $\beta=-.247$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사용된 통제변수는 없다.)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개별성-관계성	-0.247	0.157	-0.252	-1.575	
(통제변수)	성별	0.125	0.112	0.184	1.123
	나이	-0.030	0.027	-0.185	-1.119
	수입	0.001	0.001	0.120	0.745
$R^2(\text{adj. } R^2)=.048(-.035), F=0.580$					

\*  $p<.05$ , \*\*  $p<.01$ , \*\*\*  $p<.001$

취업준비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 점수가 사회적 적응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수정 $R^2=.263$ )은 26.3%로 나타났으며 F값은 4.299( $p<.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인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이 사회적 적응에 정적인 영향( $\beta=.570$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사용된 통제변수는 없다.

모형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개별성-관계성	0.570	0.154	0.525	3.707***	
(통제변수)	성별	-0.162	0.109	-0.216	-1.483
	나이	0.005	0.026	0.028	0.194
	수입	0.000	0.001	-0.012	-0.087
$R^2(\text{adj. } R^2)=.343(.263), F=4.299**$					

\*  $p<.05$ , \*\*  $p<.01$ , \*\*\*  $p<.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독교청년의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고,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와 개별성-관계성이 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 거주중인 20대 미혼 기독교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162명의 청년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결과 분석에 162부의 설문 응답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나이, 소득, 학력, 직업, 종교, 거주지역, 주관적 계층의식의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변수들인 개별성-관계성,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 대인불안), 사회적 적응의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인 기독교청년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학생인 기독교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의 지표인 자아존중감과 고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학생의 개별성-관계성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 $\beta=.306$ )을, 고독감에도 정적인 영향( $\beta=.260$ )을 미쳤다.

직장인 기독교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 지표 중 대인불안을 제외하고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자아존중감  $\beta=.214$ ; 생활만족감  $\beta=.601$ ; 고독감  $\beta=.214$ ). 또 직장인의 개별성-관계성은 사회적 적응에는 정적인 영향( $\beta=.539$ )을 미쳤다.

취업준비생인 기독교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사회적 적응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570$ ). 즉, 이로부터 기독교청년들의 개별성-관계성은 소속이 분명하게 있는 경우 자존감과 고독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는 경우 생활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에 반면 기독교 청년들의 개별성-관계성은 대인불안감과 관련하여 무관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및 결론에 근거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미시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청년들의 개개인들의 특징 중 '개별성-관계성'을 선정하였다. 또 교육학과 심리상담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오던 개별성-관계성 관련 연구를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 기독교인들을 선별하여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김초록(201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들은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지표에 다른 집단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고, 직장인들은 부정적 지표에서 다른 집단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즉, 같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과 같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안정적인 소속처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적 적응에 있어 긍정적인 감정/피드백을 주지만 경제적으로나 소속되어 있지 않아 불안정한 경우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인 감정/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 청년과 일반 청년들의 적응에 있어 경제적인 요인과 소속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김동직(1999), 정은이(2002), 채정만·이종한(2004), 김초록(2017)의 전반적인 연구결과와 달리 기독교 청년의 개별성-관계성은 심리적 적응에 항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기독교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을 이겨내기 때문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기독교 청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획득하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됨으로 심리적인 안정감보다 사회적인 적응이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즉, 기독교 청년 개개인적으로 자신다움을 갖는 것이 개개인의 어떠한 특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교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누는 활동들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보다 잘 임하는 것이 기독교 청년들의 특징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청년들을 둘러싸고 이들의 개별성-관계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기독교 청년들의 특징상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를 갖는 것이 이들의 자기개념이나 관계변인인 개별성-관계성에 있지 않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 때문으로 유추하였다. 즉,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자신을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명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깊은 나눔을 하고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응에 용이해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대상자가 서울, 경기 거주하는 미혼 20대 기독교인 남녀로 한정되어 표집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모든 기독교 청년에게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미혼 20대 기독교 청년 뿐 아니라 다른 연령층과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일반 대상자들과도 심도 있게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금주·김근영(1997). 자가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 연구 (2).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5-26.
- 곽금주(2010). **흔들리는 20대: 청년기 생애 설계 심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교육학 용어 사전(198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서울: 배영사.
- 곽호근(2007). **생활체육 참여자의 여가만족과 자기 효능감 및 사회적응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사학위논문.
- 김경은·정옥분(1998).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1호**. p.35-49.
- 김동직(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직·한성열(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 김선주(2015). **고등학생의 개별성-관계성과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한 실존적 관계맺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선주·김영희(2016). 고등학생의 개별성-관계성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1호**. 33-60.
- 김옥수(1997). 외로움(loneliness)의 개념분석. **간호과학**, 9(2), 29-38.
- 김유덕·김원일(2013). 군 병사의 내현적 자기애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12), 211-238.
- 김은정(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201**, 17(3): 83-129
- 박세연(2012). **여가만족과 사회적응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숙(2016). **기독교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과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성서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송경재(2007). 개별성-관계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상담학 연구**, 8(1), 1-12.
- 송윤숙(2016). **성인의 자아개념, 직무효능감, 자기결정성 동기가 커리어 미래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정희(2015). **대학생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시은(2010). 개별성-관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관계에서 공적자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2(3), 777-796.
- 이시은(2010). 개별성-관계성의 하위집단에 따른 성인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 11권 제4호**, 1863-1876.
- 이재원(2006).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대인불안의 관계: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아영(2010). **자기결정적 고독과 성격 및 심리적 건강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장서영·장원섭(2008).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이직고려사유와 이에 대한 대응실태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1 No.3. pp.105-138.
- 장익(2005). **20대 기독교청년의 심리사회적 성숙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국내 석사학위논문.
- 정은이(2002).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의·노안영(2007).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간 관계: 개별성-관계성의 조절효과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6(1), 59-82.

- 조윤경(2002).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윤경(2003).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상담과 심리치료*, 15(1), 91-109.
- 채정민·이종한(2004).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793-814.
- 한기연(2003). 개별성-관계성과 자기위로능력 관계에서 자의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75-89.
- 황인숙(2014).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성숙도가 진로미래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성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기독교상담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 연합뉴스. 2016. 02. 23. “돈있어야 결혼?...독신청년-청년부부 재산 양극화 심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3/0200000000AKR20160223088400017.HTML>
- 한겨레. 2017. 05. 11. “4월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고용률도 하락”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4287.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4287.html)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Daniel W.Russell(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20-40.
- Ed Diener, Robert A. Emmons, Randy J. Larsen, and Sharon Griffin(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1.
- Garmezy, N. (1994). *Reflections and commentary on risk, resilience and development*.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mezy, &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1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k R.Leary(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1.
- Markus, H., Smith, J., &Moreland, R. L. (1985). Role of the self-concept in the perception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6), 1494-1512.
- Myrna M. Weissman, PhD, Sallye Bothwell, MaEd(1976). Assessment of Social Adjustment by Patient Self-Report. *Arch Gen Psychiatry* - Vol. 33, Sept 1976.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mpson, E. E. (1989). The challenge of social change for psychology: Globalization and psychology's theory of the person. *American Psychologist*, 44(6), 914-921.
- Shavelson, Hubner, and Stanton(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6, No.3, Pp. 407-441.
- Viktor E. Frankl(1966). Self-transcendence as a human phenomenon.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Vol.6 (2), 97-106.

## ABSTRACT

### The Effect of Christian Youth's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Cholok KIM  
Eun-Ryung Paik

This Study is to verify an influence of Individuality - Relatedness on a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s among Christian youths. An Individuality - Relatedness of Christian student youth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elf-esteem and loneliness, indicators of psychological adaptation. An Individuality - Relatedness of Christian worker youths ha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Loneliness (except Personal Anxiety), indicators of psychological adaptation. Their Individuality - Relatedness ha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Social adaptation, too. And an Individuality- Relatedness of Christian job seeker youths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Adaptation only.

In the church, it would be of help to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by praying together for the mission so that God may have the time to realize himself how he called. And by engaging others in community life and sharing deeply and doing various activities in church, it is anticipated to be easily adapted to society.

Key words: Christian Youth, Individuality-Relatedness, Psychological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Adaptation

## 논평: 기독 청년들의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본 논문은 개별성-관계성이라는 척도를 중심으로 하여, 기독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적응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기독 청년들은 주일학교와 청년부, 학교 선교단체 등을 거치면서 신앙적 가치관을 훈련받던 시기를 벗어나, 직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관 및 생활방식과 직접적으로 조우하고 부딪히게 된다는 점에서, 기독청년들의 이행기에서의 적응 이슈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 전반에서 ‘청년’을 중요한 사회적 집단으로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사회적 담론들이 생산되는 상황에서, 기독청년들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논평자가 현재 사회학, 그중에서도 문화사회학과 질적연구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 활용된 이론이나 척도 논리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신 논평자의 주 관심이 청년세대의 문제이니만큼, ‘청년’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논문에 대해 몇 가지 포인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기독청년’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부재

본 논문에서는 ‘기독청년’을 주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독청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기독청년’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청년인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청년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독청년의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설명의 논리, 예를 들어서 왜 기독청년의 사회 적응을 보는 데 ‘개별성-관계성’ 척도를 봐야 하는지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독청년이라는 연구대상 집단 자체를 단일한 범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학원복음화협의회(2017)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기독청년’이라는 범주 내에서도 교회나 선교단체 등의 활동 여부부터 시작하여 신앙의 경험과 가치관에 다양한 분화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결에 따라 같은 문항에도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 기독 청년 내에 존재하는 분화의 선들을 잘 고려해서 연구 대상을 표집한다면 좋을 것 같다. 단순히 학생, 취준생, 직장인의 분류로 연구대상을 나누는 것은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 2) 비교 집단(비기독인 청년)의 부재

어떤 집단의 특성을 양적으로 조사했을 때, 그것이 해당 집단의 특징임을 설득력있게 밝히기 위해서는 그것과 대립되는 집단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두 집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

하여 그것이 유의함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조사는 기독교청년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의 비교집단이 되는 비기독교인이나, 혹은 다른 세대들에 대한 표집과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sup>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 결과가 기독교청년들만의 특징인지, 혹은 청년들 전반의 특징인지를 뒷받침해줄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3) '개별성-관계성' 개념 사용과 관련하여

개별성-관계성 개념을 설명하면서, 청년기에 가족으로서 분리되는 과정과,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설명은 개별화 과정과는 분명히 관련되지만, 관계성의 차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기독교청년들의 '공동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독교청년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단체 등에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공동체를 이룬 경험들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점에서 '개별성-관계성'의 '관계성' 부분을 기독교청년들의 공동체 경험과 연결시켜 연구해 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기독교청년 내부에서도 공동체 경험의 유무에 따라 관계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것이 이후의 적응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호작용 효과 등을 통해 고찰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 나가며

앞서 이야기했듯 기독교청년들의 가치관과 사회에의 적응 문제는 중요한 연구의 과제이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 청년들이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는 지금 시기에, 교회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청년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청년들이 세상과 부딪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들의 방황에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향후 기독교청년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예비조사 단계임을 감안한다면, 연구를 좀더 보강하고 발전시켜, 그동안 교회가 발견하지 못했던 기독교청년들의 현실의 일면을 비추어줄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학원복음화협의회, 2011, 『청년 트렌드 리포트』, 서울: IVP.

---

2) 이는 연구의 이론적 관심과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기독교' 청년의 특징을 보고 싶다면 비기독교인 청년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고, 기독교 '청년'의 특징을 보고 싶다면 교회 내 다른 세대들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